



20살 청년 노조 출범... 조합원 복지 향상에 주력 위원장 이봉준, 부위원장 이동철 · 윤석이 조합원

제 20대 연합뉴스 노조 집행부가 공식 출범했다. 20대 집행부 선거에서는 투표 참가자 224명 중 96.3%의 찬성표를 획득한 이봉준 조합원(국제뉴스2부)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 위원장은 1994년 1월 연합뉴스 공채 15기로 입사, 수도권취재본부, 국제뉴스1부를 거쳐 모스크바 특파원을 지냈다.

또 부위원장 후보로 입후보한 이동철(스포츠레저부), 윤석이 조합원(대전·충남지사)이 각각 95.49%와 95.9%의 찬성률로 부위원장에 당선됐다.

집행부원으로는 사무국장 김길원(정보과학부), 총무부장 유청만(고객지원부), 교육부장 이충원(스포츠레저부), 쟁의부장 김세진(국제뉴스부), 조직부장 심재훈(산업부), 조사부장 정성호(지방부), 복지부장 황선익(국제업무팀), 선전부장 김병규(사회부), 여성부장 이울(경제부) 조합원 등이 선임됐

다. 이밖에 노조 공보위 간사는 성기홍(정치부) 조합원이, 특위 간사는 최재석(국제뉴스2부) 조합원이 각각 맡았다.

3월15일 본사 1층 로비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이봉준 신임 노조위원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노조가 되겠다”면서 “노조에 대한 애정 어린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연합의 근로조건이 그동안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일선 취재 현장의 인력난과 근무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조만간 서울과 지방 조합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근로여건과 복지 혜택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3월15일 오후6시 1층 로비에서 열린 제20대 집행부출범식에서 이봉준 신임 위원장이 유익주 전임 위원장으로부터 깃발을 넘겨받아 힘차게 흔들고 있다.

20대 노조는 이와 함께 오는 2009년 만료되는 국가기간통신사의 연장과 회사 수익구조 증대를 위해서도 사측과 함께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 자리를 함께 한 전국언론노조 이준안 위원장도 “연합뉴스의 근간이 되는 국가기간통신법이 좀 더

공고해 질 수 있도록 언론노조에서도 힘을 보태겠다”면서 연합뉴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내비쳤다.

노조는 4월6일 노조 집행부 MT와 13일 대의원대회를 거쳐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새 집행부에 바란다

“보육시설 설치하라”



황희경 금융부

노조에 바라는 것만 많은 ‘불량’ 조합원이 또 바람을 늘어놓자니 미안하긴 하지만 노조가 이왕 자리를 깔아준 만큼 용기를 내(!) 여성 조합원의 입장에서 몇 가지 희망사항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늦은 감이 있지만 보육시설의 사내 설치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연합뉴스가 기사로는 저출산을 걱정하고 일하는 엄마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던 면이 있습니다.

제가 출입하는 금융감독원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아침에 아이와 함께 출근하는 금감원 직원을 보면서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 직원에게 금감원은 ‘좋은직장’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결혼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육아 문제가 시급하지는 않지만 남녀 가리지 않고 기혼 선배들의 육아 고민을 접해보면 회사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작은 규모라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노조가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두번째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다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최연희 의원 사건’등을 거치면서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일부에는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식으로 두루뭉술리하게 넘어가려는 의식이 남아있어 안타깝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어리거나 낮은 직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 발생시 그냥 문혀버리기 쉬운 만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올 단체협상에서 알게 모르게 숨어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 6장 53조의 경조휴가 조항에는 외조부모상은 2일, 조부모 상은 3일의 경조휴가가 주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친가 쪽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슬퍼하는 기간이 하루만큼 짧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루만큼 슬픔의 크기가 작은 걸까요.

하루를 더 쉬어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소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과거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써놓고 보니 너무 욕심이 과한가 하는 생각도 듭

니다. 마침 새 여성부장이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새 집행부가 잘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었지만 20대 노조의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20대 연합뉴스 노조에서는 올해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복지 증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설치하는 그동안 많은 여기자들의 숙원사항이었던 만큼 올해 정확한 수요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으로 삼을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6장 53조에 나와있는 부계와 모계의 차별적 경조휴가 문제는 올해 단협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勞告

▲ 노조 집행부 회사 경영설명회 청취 (일시: 4월 6일 오전 11시, 장소: 7층 회의실)

▲ 노조 집행부 MT (일시: 4월6일 오후 2시 회사 앞 출발, 장소: 주문진 등대 숙소 ☎033-662-2131) - 집행부 외에도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 노조 대의원대회 (일시: 4월13일 오후 4시, 장소: 7층 회의실, 뒷풀이: 6시 청류관)

“가족수당 실질화, 복지혜택 향상 이끌어내야”

제20대 노동조합 집행부의 건승을 빌며 몇가지 바람을 적습니다.

첫째는 가족수당 인상입니다. 가족수당이 급여명세서의 한 칸을 채우기 위한 명목상의 수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가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수당이 되길 바랍니다.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인상되더라도 보다 ‘현실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복지 혜택 확대입니다. 요즘 취업시 고려사항으로 연봉 못지 않게 중시되는 점이 사원복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다른 기업과 비교해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출산 장려 시책만 비교해봐도 공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보육시설 마련, 육아휴직제도, 육아보조금 지급, 임직원 자녀들을 위한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애쓰고 있는 반면 연합뉴스는 출산 휴가 3개월, 자녀 학자금 지원 등 통상적인 항목 말고는 없

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저 생계 수단으로서의 일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하고 싶고, 조합원과 조합원의 가정을 활기차게 해주는 삶의 터전으로 거듭 내려면 노조가 복지혜택 향상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노조 집행부가 아니라도 누군가 추진했으면 하는 아이디어를 이 기회를 빌어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아니라 우리도 다른 회사 직원처럼 회사 배지를 만들어 달고 다녔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 언젠가부터 양복 앞자락 한쪽에 반짝이는 회사 배지를 달고 다니는 다른 회사 직원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임직원들이 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곤 하지만 이런 작은 일로부터 자긍심 고취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칠때 서로 이끌어 주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있다면 그 안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

지만 타부서나 타국의 선후배들 중에는 같은 옷을 입었을 뿐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 ‘우리’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는 문화가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20대 노조 집행부가 격무에 지친 조합원의 바람을 이뤄내길 바라겠습니다.

☞ 금융부 황희경 조합원에게 답변드린 것처럼 올해 조합의 최대 목표는 조합원들의 복지 증진입니다. 조만간 집행부 회의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올해 사업목표를 확정지를 예정인 만큼 최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배지 문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이상현 전산부

“기자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해야”

개인적으로 2000년수습 ‘딱지’를 떼고 기자생활을 시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외람된 얘기지만 그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회 전체의 분위기나 취재 여건이 달라졌습니다.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고참 선배들이 느끼는 감회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상시 대기 체제인 법조팀에 있는 동안 회식이나 다른 약속 때문에 서초동 검찰청사를 떠나 가끔 회사에 들어가는 날이면 서울 시내 모습이나 거리의 인파에서 받는 느낌이 매번 바뀐다는 점에 놀라곤 합니다.

변화, 속도가 최선의 가치는 아니지만 현상을 통해 의미를 캐내야 하는 기자라는 직업의 숙명을 생각해보면 가끔은 내가 그런 현상의 변화조차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루의 3분의2 이상을 출입처에서 보내는 정치부나 사회부, 스포츠레저부 등에서 오래 근무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어느 순간 그런 벽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법조팀의 경우 보수적 성향이 강한 판·검사들과 만나다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변화에 둔감해지

게 됩니다. 노조가 조합원을 위해 그 벽에 난 창(窓)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눈은 개인이 노력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노조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원하는 개인 경쟁력 업그레이드 방안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방법을 찾아보면 건강 강좌나 첨단 산업과 문화계 동향, 재테크 관련 강좌 같은 창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사의 경쟁력 가운데 기자 개인의 능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경쟁력을 높이려면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비물질적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노조와 사측의 노력으로 업무 여건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석간보다 일찍 출근하고 조간보다 늦게 퇴근하는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부시 미국 대통령이 남미를 순방할 때 에어 포스윈에 동승한 몇 안되는 기자 중에서도 통신 기자가 가장 앞자리에 앉았고 그게 미국 사회에서는 당연

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취재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자긍심은 말할 필요도 없이 클 것 같습니다.

연합뉴스가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조가 이봉준 위원장의 일성대로 회사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에도 관심을 갖고 대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주길 바랍니다.

막중한책임감으로 어깨가무거울 20대 노조 집행부에 짐을 하나 더 얹은 것 같아 송구스러울따름입니다.

☞ 연합 노조원들이라면 어느 언론사 기자들보다 2~3배의 업무량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아무리 복지 향상을 외치더라도 기본적인 업무강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철 조합원의 지적대로 올해 조합원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조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노조가 마련하는 건강강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철 사회부

“고민 털어놓을 수 있는 노조 되길...”

먼저 첫걸음을 떤 제20대 노동조합 집행부에 적극적인 지지와 감채를보냅니다.

개인적으로 노조를 위해 열심히 일해 본 적은 없지만 이 기회를 빌어 노조에 바라는 점을 두가지만 말해 본다면 첫째, ‘친근한 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노조 사무실이 6층에 있다는 점이나, 그곳에서 DVD와 비디오를 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을 털어놓을 만큼 노조가 조합원과 친숙한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봉준 신임 노조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조합원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조가 되겠다”고 언급한 것처럼 노조 스스로가 따뜻한 가슴으로 모든 부서와 선후배 조합원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면 그동안 노조에 쌓인 조합원의 불만이나 고충을 더욱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번째, 노조가 하는 활동을 노조원에게 신속하고 빠짐없이 공지하기 바랍니다.

회사와 협상 내용이나 세부 절충사항을 노조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풍문으로만 알게 된다면 조합원으로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방조합원은 괴리감을 느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모든 사원의 관심이 쏠린 단체협상이 있는 해이기에 노조와 조합원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 입니다.

우리는 사장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식의 암울했던 과거를 떨쳐내고 한술밥을 먹는 선배가 사장이 될 수 있는 되는 희망적인 구조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단체협상에 앞서조합원과

원활한 연결통로를 구축하지 못한 채 사측과 상생만을 외치며 협상에 임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조합원이 아니라 사측에 유리한 협상을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을 다해 20대 노조 집행부를 응원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 네. 20대 노조 집행부는 올해 조합원들에게 다가서는 ‘친근한 노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조원들에게 집행부의 활동이 빨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조 홈페이지와 노보 등을 통해 모든 사항을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전승엽 그래픽뉴스팀

“연합뉴스의 손발을 신명나게”

“연합뉴스의 경쟁력은 거미줄처럼 잘 짜진 지방의 조직망입니다”

회사 경영진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연합뉴스는 지방에 100명이 넘는 취재인력을 두고,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해 국가기간 통신사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 사우들은 연간 상당한 수준의 광고와 협찬을 유치, 재정자립을 향한 전사적인 노력에 적극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사우들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서울 또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외 지역을 ‘지방’이라고 뭉뚱그려 ‘시골’과 동일시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내외에서 지원하는 해외연수 기회등이 본사 사우들에게 집중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왜 지원(志願)도 하지 않고 불멘 소리만 하느냐”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 사우들은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봐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각 지사에서는 연말에 차기 연도 영업목표를 본사에 보고한 뒤 매월 영업실적을 보고하곤 합니다.

과연 본사의 어느 취재부서가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을 보고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회사의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나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보수도 주어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 사우들이 저마다 ‘우리가 영업사원이냐’고 푸념하는 현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다수 지방사우들은 선임부장이나 부국장급인 지사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위축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본사의 지방부 외 다른 부서와 취재분담을 협의하는 데 지사장은 제3자입니다. 지방부장으로부터 편집국 회의결과를 통보받아 담당 기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는 땅에 떨어진 지방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임 노조 집행부는 임기 초반부터 지방 사우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해 연합뉴스의 손발인 지방 사우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방 취재망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회사차원의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이번 기회를 빌려 당부합니다.

☞ 집행부에서는 올해 지방부 소속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에도 귀를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는 민영규 조합원의 지적처럼 연합의 지방조직이 우리의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었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가능한 빨리 지방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집행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규 부산지사



최전선에서

한 손엔 사진기, 다른 손엔 캠코더를 들고

2월11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새벽녘 휴대전화벨 소리에 잠을 깬다. 제보자가 아니라 선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불이 나 수용 외국인들이 죽었다고 한다. 빨리 알아봐라”

순간 이미 1보는 늦었다는 감이 들었다. ‘그렇다면 사진이라도..’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

현장은 이미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있어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다. 평소 안면이 있던 경찰관의 도움으로 사진 몇 장만 찍겠다고 사정해 불이 난 수용소내부를 간신히 사진기에 담을 수 있었다. 그 와중에 타사 사진 기자들이 왔는지도 확인했지만 아직 방송 카메라 말고 사진 기자는 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좁고 앵글이 좁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셔터를 마구 눌러댔다. 그렇지 않으면 간신히 얻어낸 사진 촬영기회마저 놓칠 판이었다.

연합뉴스 지방 주재기자들에게 ‘사진은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 또 하나 반드시 챙겨야 할 ‘짐’이 있다. 동영상 촬영을 위한 캠코더다.

이번에도 한 손에는 사진기, 다른 한 손에는 캠코더를 들고 찍어댔다.

그러면서도 지방경찰청에 출입하는 선배에게 현장 분위기를 전달해야 했다. 기사를 쓸 시간이 없었기에 전화로 불러야 했다.

사진 전송을 끝내고 종합 기사를 마무리해 송고한 뒤 한숨을 돌리고 나서 동영상을 보내려 했지만 무선 USB가 말썽이었다. 기사나 사진 전송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지만 영상은 전송시 자주 끊기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말

썩이다. 그렇다고 사건 현장을 떠날 수는 없다. 그야말로 인내가 필요한 대목이다.

1보는 아깝게 놓쳤지만 사진은 다음날 중앙지 조간 7개신문(36단)에 게재됐다. 천만다행이었다.

다행이라고? 이번 화재 참사로 27명의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가 사망(10명) 또는 부상했다.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여수 주재로 발령받은 뒤 꼭 1년(2월1일자)을 넘어서 시점에 찾아온 대형사건이었다.

여수에는 지난 95년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이후 가장 많은 기자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우리 회사에서도 광주에서 후배 기자들이 취재지원차 여수로 왔다. 후배들과 함께 ‘한 건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연일 기사를 써댔지만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다.

후배 이세원 기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여직원을 따돌리고 검찰에 제출된 근무일지를 몰래 빼낸 뒤 화장실에서 카메라로 찍어온 화면을 보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후배의 용감무쌍한 기자 정신이 있었기에 방화 혐의자가 수용소 내에서 어떤 행위를 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를 다음날 소상히 단독보도 할 수 있었다.

화재가 난 다음주는 민족의 명절인 ‘설’.

하지만 설 수 없었다. 유족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차례를 지낸다고 했다. 정작 나는 부모님께 세배만 하고 성묘도 하지 못한 채 여수로 돌아와 합동분향소를 찾았다.

떡국 맛도 분향소 한쪽에서 사진과 기사를 보내고 나서야 볼 수 있었다.

이후 3월6일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고 지루한 배상금 공방 끝에 화재 참사 48일 만인 지난 3월30일 합동 장례식이 치러진 뒤 지루한 취재가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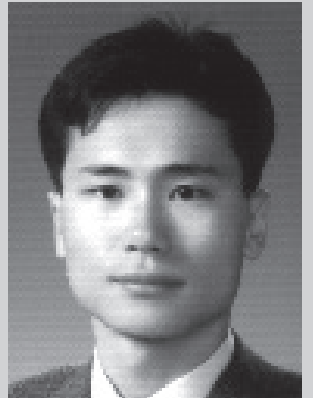
시민대책위 관계자가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을 옹호하는 듯한 기사를 썼다며 연합뉴스의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씁쓸했다.

수많은 기사들 중에 자신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기사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에 고민이 적지 않았다.

희생자들은 비록 불법 체류자라고는 하지만 외국인이다. 이들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할수록 한국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고 고민스러웠다. 또 내가 쓰는 기사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유족들의 분노를 사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걱정도 들었다.

어찌됐건 이번 여수 화재 참사는 앞으로의 기자 생활에서도 잊지 못할 하나의 기록으로 남을 것 같다.

끝으로 화재 참사 현장에 내려와 땀을 흘려준 손상원, 형민우, 이세원 후배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멀리서 기사 작성 및 물적·심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전남지사 선후배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남현호 광주·전남지사



취임사

“먼저 다가가는 노조 만들 터...”



이봉준
제20대 노조위원장

언론개혁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저희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이준안 언론노조 위원장님과 언론노조 각 지부 위원장님들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회사 발전과 개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기서 사장님 이하 경영진과 지난 1년동안 연합뉴스 노조와 회사 발전에 헌신해 온 유의주 위원장을 비롯한 19대 노조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노조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이자 대표 언론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연합뉴스 노조가 어느덧 스무살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노조의 질적, 양적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배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년 중 단 1년이라도 노조에 별로 중요치 않은 해가 있었겠습니까만은 하나의 매듭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점에 노조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희 20대 노조는 우선 '조합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조'가 되겠습니다. 항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 노력할테니 선후배 동료 여러분들께서도 사랑과 애정어린 조언과 질책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조로서 기본과 원칙에도 충실하겠습니다. 역대 집행부들 역시 이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노조의 탄생 배경과 존재 의미, 바람직한 행동 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모든 판단과 행동의 준거로 삼겠습니다.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대 경영진과 노조의 노력으로 우리 연합의 근로조건이 그동안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 일선 취재 현장의 인력난과 열악한 근무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서울과 지방 조합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근로여건과 복지 혜택이 한층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노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위해 경영진과의 협력은 물론 대안제시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연합뉴스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한쪽 바퀴로서 노조는 건전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협력할 것은 과감히 협력할 것입니다. 사측 또한 노조와 대화를 회사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및 선후배, 동료 여러분.

저희 20대 노조는 오늘 위원장 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노조가 잘할때는 박수를 보내주시고, 못하거나 아쉬울때는 과감히 채찍을 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이임사

“조합원의 고통을 잘 아는 노조 돼야...”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노조위원장 취임식을 치른 기억이 생생합니다.

노조위원장을 지낸 1년간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새 경영진 선임과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뉴스통신진흥회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방식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와중에 연합뉴스 노조 사상 처음으로 위원장 재선임 투표를 실시한 것도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작년 여름에는 멀티미디어본부 내 영상취재부의 비즈니스 모델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노보 특보팀을 구성해 노조의 역량을 집중했던 것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의 미숙함으로 인해 영상취재부원들을 포함한 회사내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신문·통신노조협의회 등 다른 언론노동자들과의 연대에 소홀했던 점도 반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언론노조 이준안 위원장은 전체 언론노동자들의 정서에 가장 가까운 분이 라고 생각합니다. 언론노동자들이 현재 어떤 문제에 가장 관심이 있고, 어떤 문제로 가장 고통을 겪고 있

는 지..이런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잘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 연합뉴스 노조를 이끌어 갈 이봉준 신임 위원장은 저보다 회사 입사기수는 아래이지만 경륜이나 인격면에서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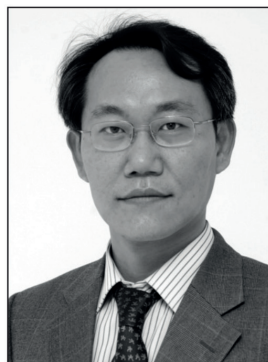
연합뉴스 노조가 언론노조의 깃발 아래 회사의 경영 감시와 방향 제시는 물론, 전체 언론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지방지는 물론, 대다수 신문 매체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합뉴스 노조 역시 결코 이들 언론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합니다.

특히 노조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조합원들의 노조 활동 참여가 관건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참여가 없다면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새 노조 집행부에 힘을 모아줄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15일



유의주
제19대 노조위원장



이달의 참글상

‘이달의 참글상’ 격려상에 김영만 조합원 기사 선정

공정정보위원회(위원장 성기홍)는 이달의 참글상(2월 송고분) 후보작 4건 가운데 경남지사 김영만 조합원의 <피고인의 ‘자살’과 ‘살자’>(2월7일자) 기사를 격려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은 없었다.

격려상을 받은 김 조합원의 기사는 자살이 만연하는 사회적 풍토 속에서 창원지법의 문형배 부장판사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기소된 30대피고인에게 ‘자살이란 말을 10번 말해보라’고 요구함으로써 ‘자살’과 ‘살자’의 반어법적 의미를 되새겼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사는 판사가 피고인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열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윤 조합원은 “판결이 있던 날 ‘수해복구 공사 예정가 사전 누출 혐의’의 공무원 관련 선고 공판을 취재하러 갔다가 문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법정에서 들러 재판을 지켜보다가 우연히 목격하게 됐다”면서 “삶에 지친 이들에게 인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3월 송고분에 대한 이달의 참글상은 4월 10일(화)까지 각 공보위원이나 노조(nojo@yna.co.kr)로 제출하면 된다.